

“그렇게 안해도 살아”

“그렇게 안해도 살아”

지금은 2세에게 가업을 넘겨주고 일주일에 두어번 인쇄사를 둘러보며 지내는 원로 인쇄인이 20여년전에 영업간부에게 하던 말이 귀에 새롭다.

입찰참여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영업간부가 일의 성격이나 여러 환경을 참작, 낮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일감을 수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당시 사장이던 이 원로인쇄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일감 안가져와도 좋아 그렇게 안하고도 지금껏 살아왔어, 그런 가격으로 낙찰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영업간부 입장에서 보면 수주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시에는 공공연한 비밀사항이던 리베이트도 준비해야 하는데 융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던 현장을 우연히 동석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쇄인들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곤 했다.

“인쇄물은 반드시 인쇄사에서 제작해야만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지



세월이 한참 흐른 요즘, 인쇄업계의 분위기는 지난날 보다 오히려 나빠진 것 같다. 덤핑이야 과거에도 있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체면을 중시하던 분위기, 동료인쇄인을 의식해서 자제하던 풍토, 서로 아껴주던 자세는 한결 없어진 듯 하다.

모르겠어, 인쇄사들이 몽땅 한달만 문을 닫아봐 아마 난리가 날꺼야.” 물론 이런 일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 발생한 적도 없다.

세월이 한참 흐른 요즘, 인쇄업계의 분위기는 지난날보다 오히려 나빠진 것 같다. 덤핑이야 과거에도 있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체면을 중시하던 분위기, 동료인쇄인을 의식해서 자제하던 풍토, 서로 아껴주던 자세는 한결 없어진 듯 하다.

각종 모임이나 회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삭막해(?)졌다. 아는 일이나

상황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을 올린다고 해서 지식인이 될 수 없으며 남을 배려하지 않고 편견과 오류를 소신과 진리인 양 내세우는 것 또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인쇄문화협회, 인쇄연합회 등 양대 단체가 올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으며 각 시·도 인쇄조합도 총회를 마치고 비전과 미래를 밝히는 각종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하더라도 일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은 조직과 사람이다.

어려운 시기에 업계를 이끌어야 할 단체장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춘 지도자여야 함은 물론 지혜로 둘러 쌓인 너넉함도 지녀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욕구나 이익보다는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행동에 앞장설 때 업계 앞날은 그만큼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업계 허리역할을 해야 하는 집행부 또한 비전과 미래에 산다는 자세로 무장하고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이어온 예절과 상부상조의 정신이 4월의 새싹과 함께 인쇄업계에 질푸르게 깔리기를 기대해 본다.

(오세익 · 편집주간)